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필리핀

Republic of the Philippines

2020년 11월 5일 | 조사역(G3) 이미지라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300천 km ² 	인구 109백만명 (2020 ^f) 	정치체제 대통령 중심제 	대외정책 실리적 외교정책 
GDP 3,673억 달러 (2020 ^f) 	1인당GDP 3,373 달러 (2020 ^f) 	통화단위 Peso 	환율(U\$기준) 49.60 (2020 ^f) 

- 필리핀은 태평양상의 타이완과 보르네오섬 사이에 위치한 7,107개의 섬으로 구성된 도서국으로, 1946년 7월 미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대통령중심제와 양원제의 정치형태를 취하고 있음.
- 해외근로자 송금과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산업의 주도로 지난 10년 간 6%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프라 사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이 침체하고, 민간소비 및 수출이 위축되어 -8.3%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5월 총선 결과 두테르테 대통령의 측근 세력이 의석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인프라 투자, 포괄적 조세개혁 등의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됨.
- 공직사회의 부패가 만연하며, 불투명하고 일관성이 결여된 행정처리와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은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임.
- 중국과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으나, 인프라 투자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반면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는 인권(마약과의 전쟁) 및 언론의 자유 침해 문제로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임.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49. 3. 3 수교 (북한과는 2000. 7. 12 수교)

주요협정 소포우편협정('61), 항공운수협정('69), 외교관,관용사증면제각서교환('70), 문화협정('73), 무역협정('78), 경제기술협력협정('85), 이중과세방지협약('86), 과학기술협력협정('86), 범죄인인도조약('96), 투자증진보호협정('96),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03), 형사사법공조조약('08), 무상원조기본협정('14),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16)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7	2018	2019	주요품목
수출	10,593,713	12,037,254	8,365,340	반도체, 석유제품, 동제품, 자동차, 플라스틱제품 등
수입	3,702,312	3,569,396	3,658,008	반도체, 산업용 전자기기, 동제품, 수동부품, 컴퓨터 등

해외직접투자현황(2020년 6월말 누계, 총투자 기준) 1,764건, 4,593,234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f
경제성장률	7.1	6.9	6.3	6.0	-8.3
소비자물가상승률	1.3	2.9	5.2	2.5	2.4
재정수지/GDP	-0.4	-0.4	-1.6	-1.8	-8.1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20.)

2020년 필리핀 경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8%대의 역성장 전망

- 필리핀 경제는 해외 근로자(OFWs, Overseas Filipino workers) 송금 유입과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산업 및 관광업 발전을 토대로 한 민간소비 증가에 힘입어 지난 10년간 연평균 6%대의 성장을 기록하였음.

* 콜센터, 데이터 입력 등 기업의 비핵심 업무를 제3의 서비스업체에 하도급하는 아웃소싱 전문 산업

※ 2019년 기준 산업 부문별 GDP 구성: 서비스업 61.0%, 제조업 18.5%, 농업 8.8%, 건설업 7.7%

-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3월 중순부터 5월까지 봉쇄조치를 시행한 데 따른 민간소비 급감으로 2분기 경제성장률은 1985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16.5%를 기록함. 정부의 6월 이후 봉쇄조치 완화, 사회·경제적 대응책 발표, 기준금리 인하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광, 인프라 사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이 침체하여 국내투자와 민간소비 및 수출이 동반 위축되어, 2020년 필리핀 경제는 -8.3%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필리핀 정부의 사회·경제적 대응책은 ①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급여 보조금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 지원금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②최전선의 의료진 안전 보장, ③약 120억 달러 규모(GDP의 3.1%)의 재정·금융 지원 방안, ④코로나19 이후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회복을 위한 계획 등을 핵심으로 함.
-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둔화됨에 따라 유동성 확보를 위해 2020년 중 기준금리를 4회에 걸쳐(4.00% → 3.75%(2월) → 3.25%(3월) → 2.75%(4월) → 2.25%(6월)) 총 175bp 인하함.

[표 1] 주요 기관별 필리핀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구분	IMF	ADB	EIU	IHS Markit
2020년	-8.3	-7.3	-6.1	-8.2
2021년	7.4	6.5	5.8	7.7

국내경제

코로나19로 인한 민간소비 위축,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2%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원자재 국제가격이 낮았던 2015년 0.7%를 기록한 후 소비세 인상, 국제유가 상승, 폐소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지속된 결과, 2018년 5.2%까지 상승하여 중앙은행의 관리 목표 범위(2~4%) 상한을 초과함.
- 2019년에는 정부의 안정적인 물가 관리, 식료품 가격 및 교통요금 하락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관리 목표 범위 내로 진입하였으며, 2020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민간소비 위축, 국제유가 및 상품가격 하락으로 촉진된 낮은 원자재 가격 등의 요인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세수 감소 및 정부지출 확대로 사상 최대 재정수지 적자(GDP 대비 -8.1%) 예상

- 필리핀 하원은 2019년 예산의 유효성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하여 2019년 및 2020년 예산 지출의 중복을 초래해 2020년 재정수지에 악영향을 주었으며, 여기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세수가 급감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이 급증하여 GDP 대비 -8.1%의 사상 최대 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됨.
- 필리핀 정부는 포괄적 조세개혁(Tax Reform for Acceleration and Inclusion, TRAIN) 추진 및 쌀 관세법(Rice Tariffication Law) 발효에 따른 세수 확대, 대내외 차입, 정부기관으로부터의 높은 배당금 수입 등으로 재정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대규모 인프라 사업, 교육 및 보건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지출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는 향후 5년 간 2019년 이전의 상태(GDP의 -2% 미만)로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경기 회복을 위한 개발 협력국 및 민간 시장으로부터의 차입금이 99억 달러(2020년 10월 9일 기준)에 이르며, 이는 정부 차입금의 30%를 차지함.

[표 2] 필리핀 재정수지 규모 및 GDP 대비 비중 전망

단위: 십억 페소, %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재정수지	-1,475	-1,479	-1,391	-1,511	-1,656	-1,773
재정수지/GDP	-8.1	-7.3	-6.3	-6.2	-6.2	-6.1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0.)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경 상 수 지	-1,199	-2,143	-8,877	-3,386	3,217
경상수지/GDP	-0.4	-0.7	-2.6	-0.9	0.9
상 품 수 지	-35,549	-40,215	-50,972	-49,313	-33,372
상 품 수 출	42,734	51,814	51,977	53,475	42,433
상 품 수 입	78,283	92,029	102,949	102,788	75,805
외 환 보 유 액	71,853	71,598	69,382	78,051	85,101
총 외 채	74,763	73,098	78,960	90,598	93,988
총외채잔액/GDP	23.5	22.3	22.8	24.1	25.6
D.S.R.	8.6	7.5	7.9	8.2	10.8

자료: IMF, EIU

2020년 경상수지는 상품수입 급감으로 인한 불황형 흑자 기록 전망

- 경상수지는 2016년 이후 인프라 투자에 따른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 급증으로 적자 전환된 이후 2018년 -88.8억 달러(GDP의 -2.6%)까지 적자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는 해외근로자 송금에 의한 경상이전수지 및 서비스수지 흑자 증가에 힘입어 -33.9억 달러(GDP의 -0.9%) 수준으로 개선됨.
 - * 2019년 주요 수출품 : 전자제품(56.2%), 광물 상품(6.5%), 농업품(5.9%), 기계 및 운송 장비(5.8%) 등
 - * 2019년 주요 수입품 : 원자재 및 중간재(33.7%), 자본재(28.1%), 소비재(16.0%) 등
-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수출상품의 해외수요가 급감하면서 상품수출이 전년대비 약 21% 감소할 전망이다이나,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초래된 에너지 국제가격 하락 및 민간소비 감소로 상품수입이 그보다 많은 전년대비 약 26%의 감소세를 시현함으로써 경상수지가 일시적인 흑자(불황형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 제한으로 관광 부문이 극도의 부진에 빠지면서 2020년 서비스수지 흑자는 전년대비 60% 가까이 감소한 53억 달러 규모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향후에도 경상수지는 에너지 국제가격 상승, 인프라 투자를 위한 원자재 수요 회복 등으로 상품수입이 다시 증가하면서 2021~25년 연속 적자(GDP의 평균 -1.4% 수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대외거래

폐소화 가치는 여타 신흥국 통화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 유지

- 큰 폭의 상품수입 감소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중앙은행의 거둬들인 인하에도 불구하고, 미국 및 주변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금리(2020년 10월 말 2.25%)¹⁾ 등의 영향으로 2020년 폐소화 가치는 여타 신흥국 통화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2021~24년*에는 국제유가 상승, 경상수지 적자 전환 등이 폐소화 가치 하방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폐소화의 달러 대비 연평균 환율 전망(EIU) : 49.6('20) → 50.9('21) → 52.1('22) → 52.5('23) → 53.5('24)

외환보유액은 안정적인 수준 유지

- 필리핀의 2019년 말 외환보유액은 780억 달러로 월평균수입액의 6.7개월분에 해당하는 안정적인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2020년 말에는 경상수지의 불황형 흑자와 상품수입 감소로 인해 외환보유액이 월평균 수입액의 9.4개월분에 달할 전망이다. 외환보유액은 대외차입 등으로 향후에도 증가세를 지속하여 2024년 기준 1,05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외환보유액 전망(억 달러, EIU) : 871('20) → 934('21) → 990('22) → 1,027('23) → 1,055('24)

외채상환능력

외채 관련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 유지

- 총외채잔액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말 940억 달러에 육박하겠으나, GDP 대비 비중은 25% 안팎의 비교적 양호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아울러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은 20%대 초반,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총수출액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각각 10% 안팎과 110%대 초반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됨.
- 중장기 차관 위주의 외채구조 및 안정적인 수준의 외환보유액 유지 등으로 당분간 대외지급능력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연말 기준 총외채잔액 전망(백만 달러) : 93,988('20) → 100,368('21)

* 연간 외채원리금 상환액 전망(백만 달러) : 9,088('20) → 9,21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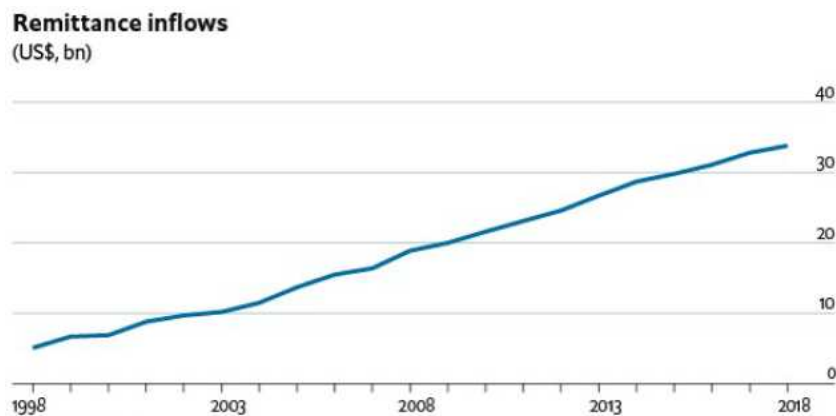
1) 2020년 10월 말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0.125%이며, 주변국들의 기준금리는 태국 0.5%, 말레이시아 1.75% 등임.

구조적취약성

해외근로자 송금액과 특정 국가 및 제품 수출에 대한 높은 의존도

- 필리핀 전체 인구의 2%인 220만 명이 미국, 걸프 국가, 동아시아 등 해외에 취업하여 벌어들이는 외화는 필리핀의 주요 수입원이며, 필리핀 가정의 8% 이상이 해외근로자 송금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리고 있음. 2019년 기준 해외근로자 송금액(약 335억 달러)이 GDP의 약 9.3%에 달할 정도로 해외근로자 송금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음.
- 해외근로자 송금액은 외환보유액 유지와 국내소비 촉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장기적인 자본투자로 연결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그림 1] 연도별 해외근로자 송금액 유입 추이



자료: World bank, EIU

- 2019년 기준 필리핀의 수출은 미국(16.3%), 일본(15.3%), 중국(13.5%), 홍콩(13.5%)에 집중되어 동 국가들의 경기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이며, 품목별로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 (총수출의 약 56.2%) 수출품목 다변화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주요 산업 부문의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저해

- 필리핀 정부는 1980년대 이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일관된 정책을 펼쳐 외국인투자 유인을 위한 다수의 법을 제정 및 운영 중이나, 교통, 석유제품 공급 등 주요 산업 부문에서 여전히 외국인투자자의 지분 제한이 있음. 아울러 낙후된 시스템과 제도 등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도 외국인투자 유치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함.
- 2년마다 외국인투자 제한 목록(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을 발표하며, 현재 필리핀 국회에는 외국인투자 지분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법안이 계류 중임.
- 필리핀은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Doing Business 2020에서 작년보다 29위 상승한 95위(190개 국가 중)를 기록하며 창업, 건축인허가, 소액 투자자 보호 부문에서 상당한 개선을 이루었으나, 신용 획득, 계약 실행 등 경제활동을 위한 시스템과 제도적 여건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성장잠재력

풍부한 인구와 광물자원 보유

- 필리핀은 매년 약 2%의 인구증가율을 기록하여 1억 명이 넘는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음. 전체 인구의 연령 중간값은 24.3세로 젊으며, 영어 구사가 가능한 노동인구가 많음.
- 필리핀은 광물자원 부국으로 주요 광물의 매장량이 세계적인 수준(총매장량 가치 8,400억 달러 추정)이나, 정부의 환경보호 우선 정책과 불안정한 사업개발 여건으로 지금까지 투자가 활발하지 않아 향후 개발 잠재력이 높음.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열악한 인프라 환경

- 필리핀의 열악한 교통·전력·상수도·통신 환경은 제조업 및 건설업의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세계경제포럼의 2019년 세계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서 필리핀은 조사대상 141개국 중 64위로 전체 순위는 중위권에 해당하나, 교통 인프라(102위), 전력·수도 인프라(96위), ICT(88위) 등 인프라 부문이 취약한 상태임.

정책성과

'Build Build Build' 프로그램의 지속 추진

- 두테르테 행정부는 2016년부터 거대 교통망 연결을 통한 필리핀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빈곤 퇴치 등을 목표로 도로, 교량, 공항, 항만, 수자원 등 전반적인 인프라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Build, Build, Build' 프로그램을 추진 중임.
- 과거 필리핀 정부는 민·관 협력 프로그램(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중심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주도하였으나, 두테르테 행정부는 세금, 해외원조, 상업금융을 통한 공공 영역의 주도로 2016년 GDP의 4.5%, 18년 GDP의 5.1% 규모의 자금을 인프라 사업에 지출함.
- 정부는 'Build Build Build' 프로그램에 따라 경제효과가 큰 75개 주요 사업을 선정하였으나, 행정 절차 지연과 토지 취득 문제로 계획 달성이 부진하자, 2019년 11월 보다 규모가 작은 100개의 사업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수정안을 발표함. 수정안에 따르면, PPP 사업이 전체 사업의 26%를 차지하며 그 비중이 늘어남(9개→26개).
- 4조 페소(약 860억 달러) 규모의 100개 사업은 교통, 전력, 수도, 정보 기술, 도시개발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이 중 56개 사업은 2022년까지 완공될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공공 인프라 지출은 전년대비 9.7% 증가한 8,817억 페소(약 182억 달러)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로 7,251억 페소(약 149억 달러)로 삭감됨. 그러나 정부는 인프라 개발사업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2022년까지 GDP의 7.4% 규모의 지출 확대를 계획하고 있음.

정책성과

포괄적 조세개혁의 지속 추진

-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6년 5월 대선 직후 빈곤 퇴치와 대규모 사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세제개혁의 추진을 공언하였으며, 조세수입 증대 및 조세체계 정비를 위한 포괄적 세제개혁(TRAIN)을 추진하여 빈곤을 축소 및 경제성장을 위한 종합 세제 개혁안을 단계별로 입법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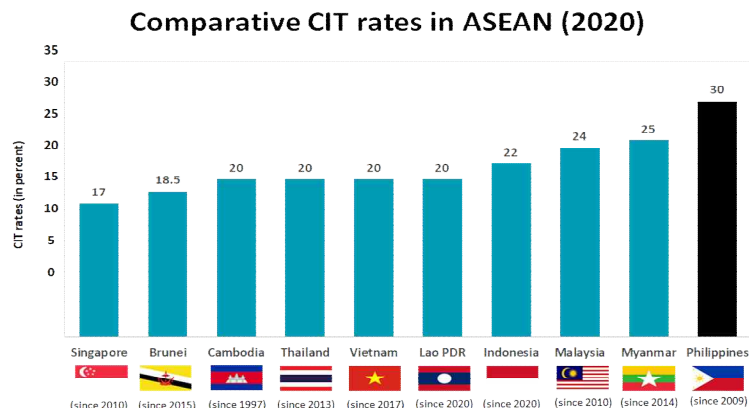
< 필리핀 정부의 포괄적 조세개혁 프로그램 단계별 개요 >

구분	내용
Package 1A	개인소득세 인하 및 단순화, 부가가치세 세원 확대, 유류세·자동차세 조정 등
Package 1B	유산세 면제
Package 2	법인세율 인하(30%→20%), 기존 보조금 삭감, 조세 공정성·투명성 강화
Package 2+	최약세 및 채굴세 제도 개선
Package 3	통합된 부동산 가치 측정 시스템 도입, 부동산세 인상 및 신설
Package 4	자본소득 및 금융소득 과세 제도 개선

출처: 필리핀 재무부

- 2017년 통과된 Package 1은 개인소득세 감세(연봉 25만 페소 이하 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 유류세 증세 및 신설(디젤, LPG에 세금 도입), 설탕세 신설, 자동차소비세 인상,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확대 등을 담고 있으며, 동법의 시행으로 정부 세입의 GDP 대비 비중은 2018년 15.6%에서 2019년 16.1%로 확대되었음.
- 주변국보다 높은 법인세율*(30%)을 2022년까지 25%, 이후로 매년 1%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2027년 20%까지 인하하고 기존 보조금 제도를 개선하는 Package 2는 2020년 말까지 통과 목표로 현재 필리핀 의회에 계류 중임. 아울러 부동산 가치 측정 시스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Package 3과 자본소득 및 금융소득 과세 제도 개선을 위한 Package 4도 의회에서 검토 중임.

[그림 2] ASEAN 회원국 간 법인세율 비교



정치안정

두테르테 정권, 2022년 차기 대선까지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지지기반 확보

-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마약과의 전쟁, 연방제 시행, 내전 종결, 3자녀 제한 정책, 부패 척결, 중국과의 관계 개선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음. 이는 정치권 부패와 마약 범죄의 근절, 경제 회복을 원하는 대중의 열망과 맞물려 두테르테 후보의 당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두테르테 대통령은 동년 6월 말 취임 직후 91%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였음.
- 2018년 중 인플레이션 압박, 미미한 개혁 성과, 인권 침해 논란 등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였음. 아울러 필리핀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점인 소수 재벌과 토착 세력의 경제권 지배, 가문·족벌 정치 중심의 정치 상황이 시민들의 현 정권에 대한 주요 불만으로 떠오름.
- 2019년 5월 총선 결과 두테르테 대통령의 지지세력이 의석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차기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2022년 5월까지 안정적인 정책 추진력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됨. 또한, 2019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안정으로 지지율이 다시 상승함.
- 동 선거는 하원의원 전원(304석, 비례대표 포함)과 상원의원의 절반(24석 중 12석)을 선출하였으며, 선거 결과 집권 여당인 필리핀민주당-민중의힘(PDP-Laban)을 비롯하여 두테르테 대통령의 지지세력으로 분류된 정당들이 상원 9석 및 하원 192석 이상을 획득하며 최종적으로 상원 20석 및 하원 200석 이상을 장악하였음.
 - * 상원 : PDP-Laban 5석, 국민당(Nacionalista) 4석, 국민연합당(NPC) 3석 등
 - * 하원 : PDP-Laban 94석, Nacionalista 37석, NPC 33석, 국민통합당(NUP) 28석 등
- 필리핀의 여론조사 기관 Social Weather Survey에 따르면, 2019년 4분기 말 기준²⁾ 필리핀 국민의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72%로 높은 수준을 기록함.

헌법 개정 추진은 잠정 보류 중

-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당시 헌법개정을 통해 대통령 6년 단임제를 내각제로 전환하고 조세 등 재정 자치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되, 외교·국방·세관 등은 중앙정부에서 관할하는 방식의 연방제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집권 여당을 비롯한 다양한 집단의 반대로 2019년 6월 연방제 도입 추진을 포기하였음.
- 필리핀은 1987년 개헌을 통해 6년 대통령 단임제를 도입하였음. 2000년대 중반 글로리아 아로요 전 대통령이 내각제 전환과 연방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집권 연장 논란으로 무산된 바 있음.
- 그럼에도 두테르테 대통령은 국가수입의 지방정부 배당 증대, 외국인투자 지분 규제 철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현재 코로나19 발발로 우선순위에 밀려 관련 절차가 보류된 상태임.

2)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론조사 요원이 현장 조사를 실행하지 못하여 2019년 데이터가 최신임.

사회안정

인권, 언론의 자유 침해 등으로 민주주의 정착 요원

-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직후 2016년 7월부터 시작된 '마약과의 전쟁'으로 2020년 7월 말까지 5,810명이 경찰의 단속에 저항하다 숨진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단속 과정에서 재판 없이 용의자를 사살한 '초법적 처형' 등에 의한 희생자는 2.7만 명에서 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두테르테 대통령은 현재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반인도적 범죄와 대량 살인 혐의로 피소된 상태임.
- 2018년 정부는 두테르테 대통령 정책을 비판한 뉴스 웹사이트인 래플러(Rappler)의 등록을 취소하고, 2020년 6월 래플러의 편집장이었던 Maria Ressa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함. 2020년 7월 필리핀 의회는 같은 이유로 필리핀 최대 방송사 ABS-CBN의 방송 사업권 갱신을 거절함.
- 국경없는기자회의 2020년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 보고서에서 필리핀은 조사 대상 180개국 중 136위로 말레이시아(101위), 인도네시아(119위) 등 여타 ASEAN 회원국들보다 언론 자유 수준이 낮음.

높은 강력범죄 발생률,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및 공산당 반군의 테러 발생으로 치안 불안정

- 필리핀은 강력범죄의 발생률이 높으며, 민다나오 지역을 중심으로 이슬람 세력과 공산당 반군에 의한 소규모 테러가 자주 발생하는 등 치안이 불안정함.
-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인 아부 사야프는 2019년 1월 필리핀 남부 홀로 섬 성당에서 자살폭탄 테러로 125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데 이어 2020년 7월 홀로 섬에서 두 차례 연쇄 폭탄 테러로 90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킴.
- 공산당 반군은 혁명세(Revolutionary taxes) 명목으로 사업 수익의 2% 납부를 거부하는 기업의 자산에 공격을 가하고 있음. 2017년에는 제조 공장과 농장에 방화하여 재산상 타격을 입혔고, 2019년 5월에는 건설회사 소유의 트럭에 방화함.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 만연

- 두테르테 행정부의 강력한 부패 척결 추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부패가 여전히 심각함. 국가 사업 진행시 공무원의 뇌물 수수는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는 수단이라는 인식이 팽배함.
- 필리핀 반부패위원회는 2019년 보고서를 통해, 필리핀 정부기관 중 가장 부패한 기관은 보건부, 국가 주택기구(National Housing Authority), 공공사업부이며, 부패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은 지방정부라고 밝힘.
- 2019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필리핀은 조사대상 180개국 중 113위, 평점은 100점 만점에 34점으로 말레이시아(51위), 인도네시아(85위) 등 여타 ASEAN 회원국들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임.

국제관계

중국과는 남중국해 영유권 관련 갈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우호관계 유지

- 필리핀은 남중국해의 스카버러 암초(Scarborough Shoal)와 스프래틀리 군도(Spratly Islands)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오랫동안 갈등을 빚고 있으나, 최근 중국을 겨냥한 남중국해 내 석유/가스 공동 탐사 금지조치를 해제하였음. 아울러 중국 주도의 AIIB 가입(2016년), 대규모 인프라 투자 지원 요청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2016년 7월 유엔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무효 판결을 내렸으나,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해역에서 원유 공동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2018년 남중국해 내에서 석유/가스 공동 탐사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19년 석유/가스 공동 개발을 위한 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공동 탐사 금지조치 해제를 위한 노력을 해옴.
- 2020년 7월 국회 연설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에 코로나19 백신 우선 공급을 요청하면서 사실상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2020년 10월 결국 6년 동안 계속된 남중국해 내 중국과의 석유/가스 공동 탐사 금지조치를 해제함.

미국, 유럽과는 인권 침해 문제, 중국과의 관계 강화 등으로 인해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

- 미국은 1898년 이후 약 50년간 필리핀을 식민지로 지배하였으며 1946년 독립 이후에도 70년 가까이 상호 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강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다소 소원해짐.
- 두테르테 대통령은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의 방미 초청을 거절하고, 미국에 방문군 협정(VFA, Visiting Force Agreement) 파기를 경고하기도 하였으나, 2020년 6월 미국과 필리핀은 방문군 협정 갱신에 합의하였음.
- 두테르테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 등 인권 및 언론의 자유 침해 문제로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도 사이가 소원해진 상태임.
- EU는 2020년 9월 인권 침해 및 언론 탄압 등의 이유로 필리핀에 대한 GSP+ 지위(일반특혜관세)가 박탈될 수 있다고 경고함. 필리핀은 코코넛 오일, 코코아, 커피, 고무 등 모두 6,274개 품목의 대EU 수출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고 있는데, GSP+ 지위 박탈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됨.

외채상환태도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수준 유지

- 필리핀은 1984년 최초로 IMF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파리클럽으로부터 총 5차례(1984년, 1987년, 1989년, 1991년, 1994년)에 걸쳐 재무재조정을 받는 등 외채상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06년 IMF 차관을 전액 조기 상환하였음.
- 2020년 6월 말 기준 필리핀에 대한 OECD 회원국 ECA 승인잔액은 단기 14.1억 달러, 중장기 10.7억 달러로 총 24.8억 달러이며, 이중 연체액은 40만 달러로 미미하여 채무상환태도는 양호한 편임.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3등급(2020.06)	3등급(2019.06)
Moody's	Baa2(2020.07)	Baa2(2018.07)
Fitch	BBB(2020.09)	BBB(2020.05)

국제신용평가3사는 투자적격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하향

- 국제신용평가3사는 필리핀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높은 경제성장 전망, 양호한 외채비중 및 정부채무 비율 등을 고려하여 투자적격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다만, Fitch는 5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조치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 해외근로자 송금액 감소 등으로 인한 필리핀의 단기적 경제성장 둔화 및 재정 악화를 우려하여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positive)'에서 '안정적(stable)'으로 하향 조정함.

- 필리핀은 과거 10년간 해외근로자 송금액과 BPO 산업의 호조로 연 6%대의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프라 사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이 침체하고 민간소비 및 수출이 축소되어 -8.3%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세수가 급감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 지출이 급증하여 GDP 대비 -8.1%의 사상 최대 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됨.
- 2020년에는 에너지 가격 하락 및 민간소비 감소로 인한 수입 감소세가 수출 감소세를 앞질러 경상수지가 일시적인 흑자(불황형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말 주요 외채지표는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 25.6%,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22.3%,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 10.8% 등으로 전망됨. 중장기 차관 위주의 외채구조 및 안정적인 수준의 외환보유액 유지 등으로 당분간 대외지급능력에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 국제신용평가3사 모두 필리핀에 대해 투자적격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Fitch는 2020년 5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성장의 단기적 둔화 및 재정 악화를 우려하여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positive)에서 '안정적'(stable)으로 하향 조정함.